

내 마음의 간이역

김 동 정
수필가

기적소리가 울린다. 먼데서 온 손님처럼 반갑게. 나는 지금 시골의 간이역 플랫폼에서 있다. 짧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다. 기차는 그 커다란 몸체를 이끌고 쇳소리를 내며 내 앞에 살며시 멈춰 선다. 타고 내리는 사람은 서너 명 남짓. 하루 세 번 오는 기차는 그렇게 몇 사람을 싣고 다시 목적지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참으로 오랜만에 기차를 탔다. 옛그제 집을 떠나면서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 없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돌아가는 일상은 내 몸에 자물쇠를 채워놓기 일쑤였다. 그런 나날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는 게 너무 싫어 걱정하고 집을 나섰던 것이다. 기차 여행은 나를 살 맛나게 해주었다. 아, 나는 그 동안 우물 안에서 하늘만

보고 살아왔구나.

기차를 탄다는 것은 한 세상을 잊고 다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었다. 떠난다는 것은 두려움이자 설렘이었다. 또 다른 세상은 온갖 신기한 것들로 가득했다. 바빠 사느라 미처 느끼지 못했던, 그리움과 애잔함과 잔잔한 감동이 마음속으로 마구 밀려들기 시작했다.

기차는 오후 2시 무렵쯤 시골의 한 간이역에 도착했다. 보따리를 이고 진 할머니 할아버지 의 뒤를 따라 나는 개찰구를 빠져 나왔다. 수기(手旗)를 흔드는 늙은 역무원은 이웃 아저씨처럼 수더분했다. 인적이 거의 없는 역은 시간이 멈춰있는 듯했다. 역사 앞으로 졸졸졸 흘러내리는 개울물과 철로변에 핀 온갖 들꽃. 그 정겨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내 마음은 문득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이맘때쯤이면 더욱

생각나는 어릴 적 추억. 고향집 둔덕에 오르면 저만큼 기차길이 보였고, 하루에 세 번, 깊은 산 속 골짜기를 허위허위 내달려 온 기차는 기적소리를 길게 울리며 우리 마을 앞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바리바리 무거운 짐을 실은 기차는 끝없이 펼쳐진 평야와 강을 건너고 산을 에둘러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곳으로 왔을 것이다.

어려서 타 본 기차는 나를 얼마나 설레게 했던가. 달리는 기차 안에서 내 몸은 출렁대기 일쑤였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바깥 풍경이 몹시 궁금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이다. 철부지의 난동에 어른들은 싫은 기색을 드러냈지만 그때뿐이었다. 돈 벌러 간 누이를 찾아간다고 하루 꼬박 기차를 탄 적도 있었다. 물어 물어 찾아간 그곳은 도시 변두리의 어느 작은 식당이었다. 누이는 내 볼을 쓰다듬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 그 기차를 다시 타보고 싶다.

간이역은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고요했다. 이때쯤 조무래기들이 대합실에 들어와 장난을 치는 게 고작이었다. 긴 나무 의자가 놓여 있는 대합실에는 기차 시간표와 이 고장을 알리는 지도 한 장만이 달랑 붙어 있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사랑하는 사람을 마중 나온 사람도,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젊은 연인도, 철로변에서 놀다 지나가는 기차 꿈무늬를 졸졸 따라가던 아이들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 간절함과 애뜻함과 순수함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렇다. 간이역은 이런 모든 사연이 녹아 있는 추억의 공간이다. 어린 날의 꿈과 학

창 시절의 낭만이 진하게 배인 이 작은 역에서 나는 삶이 왜 아름다운지를 보고 느낀다. 20대 초반, 간이역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은 어느 날 한 마디 말도 없이 내 곁을 훌쩍 떠나갔다. 사랑에 목말라 하던 시절이었으므로 이별은 내게 너무나 큰 상처였다. 그 깊은 상처는 불혹을 바라보는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다. 내게 간이역이 없었다면 그런 상처 따윈 받지 않았을 것이다. 간이역에 올 때마다 옛사랑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것은 아픔이기 이전에 그리움이고 삶의 청량제이기도 하다. 그대는 만남과 이별이 남긴 눈물의 흔적을 아는가. 간이역엔 우리가 놓쳐버린 애환이 켜켜이 쌓여 있다.

북적거리는 간이역은 웬지 어울리지 않는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고요와 적막이 안개처럼 흐르는 간이역이 나는 좋다. 산 능선이 아득히 뻗어있고, 강이 사이좋게 흘러가고, 바람 냄새 꽃 냄새 물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발두렁 논두렁 가로 오두막이 있는 그런 간이역. 우리나라엔 이런 정겨운 간이역이 참 많다. 그러나 이용객이 줄면서 곧 문을 닫아야 하는 역도 적지 않다.

급행열차는 서지 않았다. 뽀얀 연기를 내뿜으며 달려오는 증기기관차는 간이역에 사람들을 풀어놓고 급할 게 없다는 듯 서서히 움직인다. 기차표는 역무원이 직접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알아서 넣고 나간다. 간이역은 급행열차를 아주 싫어한다. 뭐든지 ‘빨리빨리’를 외치는 보통 사람들에게 간이역은 잠시 쉬었다 가라고 일러준다. 그 소리 없는 가르침, 느낌이 주는 미학을 사

람들은 알고 있을까? 그대는 간이역만이 주는 여유, 휴식, 소박함, 낭만을 아는가.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젖고 기적소리마저 젖은 비 오는 간이역 플랫폼에 우두커니 서 보라. 인생이란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대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삶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가려는 몸부림인지도 모른다. 인생 행로에서 어찌 어찌하다 여기까지 흘러왔구나. 기다리는 기차는 안 오고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먹구름은 어디론가 하염없이 흘러가고 들꽃들은 난분분 떨어져 내리고... 자연에서 나온 나란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비 오는 간이역에서 겸손과 낮춤의 자세를 배운다. 모든 것을 이익과 연결짓는 발빠른 세상에서 간이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하찮은 존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텅 빈 공간은 우리들 마음의 고향이요, 정신의 귀의처다. 간이역이 영화나 드라마 무대로 자주 등장하는 것도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 살뜻하고 따듯한 정서를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함이다.

오르고 내리는 사람, 가고 오는 사람들. 그들이 뿌리고 간 사연은 역 곳곳에 추억이란 이름으로 남아 있다. 삶을 아름답게 해주는 서정(抒情)과 서사(敘事)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한다. 두 가닥으로 이어진 철길은 만나지 못해 눈물을 글썽이는 연인처럼 아득하기만 하다. 저마다 행선지가 다르고 사연이 달라도 역이란 공간에서 잠시나마 몸을 기댈 수 있다는 게 눈물겹다.

비행기보다 빠르다는 고속철도의 시대지만 간이역은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 속도와 능률을 생각한다면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일 테지만, 고속철도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삶의 다양성을 우린 간이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시골 간이역에서 인생살이를 배운다. 눈물, 이별, 소외, 외로움, 고단함이 무시로 찾아들지만 소박함과 호젓함과 설렘과 여유로움이 있기에 나는 더없이 좋다. 완행열차는 경적을 울리며 재빠르게 통과하는 급행열차를 결코 부러워하지 않는다. 오로지 제 갈 길을 갈 뿐이다.

이별과 눈물, 추억과 만남, 희망과 설렘, 낭만과 외로움, 기다림과 깨달음, 동경과 긴장, 침묵과 적요, 쓸쓸함과 기쁨, 기대와 떨림. 간이역은 그렇게 인간사(人間事) 모든 것을 감싸안은 채 오늘도 말없이 서 있다. ☺